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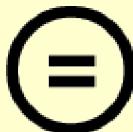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개선 방향 연구
: 위험요소 분석과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관리전공

홍 강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개선 방향 연구
: 위험요소 분석과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School Safe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Safety: Focusing on
Risk Factor Analysis and Preventive Activities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관리전공

홍 강 식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최천근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개선 방향 연구
: 위험요소 분석과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School Safe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Safety: Focusing on
Risk Factor Analysis and Preventive Activities

위 논문을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관리전공

홍강식

홍강식의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이태화 (인)

심사위원 조용민 (인)

심사위원 최전근 (인)

국 문 초 록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개선 방향 연구 : 위험요소 분석과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홍 강 식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은 불가항력적 재난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갈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재난은 천재지변이나 홍수, 화재와 같은 시설에 관련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학교 안전을 생각해보면 교사와 학생 간의 폭력, 혹은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중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 괴롭힘이 계속 증가하고 점점 지능화되며 최근 사이버폭력과 따돌림으로 진화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후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상황, 발생 원인을 분석한다. 둘째,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 최근 놀랍게 발전한 IT 기술을 응용한 대안을 검토하고 셋째, ‘학교폭력’에 관한 교사, 학부모,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 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주요어】 재난안전, 학교 안전 시스템,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폭력 예방, CCTV, IoT Device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1.1 사회안전과 학교폭력	1
1.1.2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	2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II.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및 실태	4
2.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4
2.1.1 학교폭력의 정의	4
2.1.2 학교폭력의 유형	6
2.2 학교폭력의 특성과 실태 추이	9
2.2.1 학교폭력의 특성	9
2.2.2 학교폭력의 피해실태 및 추이	10
III.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활동	14
3.1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	14
3.1.1 학교폭력 실태	14
3.1.2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17
3.2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20
3.2.1 학교폭력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20
3.2.2 학교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이론연구	24
3.2.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26
3.2.4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인식조사	27

IV. 학교폭력 설문조사	31
4.1 설문조사 방법	31
4.2 설문조사 결과	33
4.2.1 응답자별 분석	33
4.2.2 학교폭력 예방에 CCTV 역할 인식조사	36
4.2.3 휴대용 CCTV(바디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 분석	38
4.2.4 IOT센서 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41
4.3 소결	43
 V. 결론	45
 참고문현	48
 부 록	50
 ABSTRACT	59

표 목 차

〈표 2-1〉 학교폭력 유형	6
〈표 3-1〉 학교폭력 실태조사 최근 조사내용 및 방법	18
〈표 3-2〉 학교폭력 발생 원인	19
〈표 3-3〉 효과적인 예방 활동	27
〈표 3-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분석	29
〈표 3-5〉 학폭 불안 설문자 직업별 분석	30
〈표 4-1〉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설문자 직업별 분석 ..	37
〈표 4-2〉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성별 분석	37
〈표 4-3〉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연령별 분석	38
〈표 4-4〉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근무 기간별 분석	39
〈표 4-5〉 바디캠퍼스용이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	41

그 림 목 차

[그림 2-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2013~2022)	11
[그림 2-2] 피해 유형별 피해 응답자 수(2022년)	12
[그림 2-3] 학년별 피해 경험 유형	13
[그림 3-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7
[그림 3-2] 안전 전반 vs 학교폭력 인식률 분석	29
[그림 4-1] 설문 응답자 직업 분석	31
[그림 4-2] 설문 응답자 나이 지역 분석	32
[그림 4-3] 교사 근무 기간 시간 분석	33
[그림 4-4] 학생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경험 분석	34
[그림 4-5] 자녀들의 학교폭력 경험 분석	35
[그림 4-6] 졸업생 학교폭력 경험 분석	36
[그림 4-7] CCTV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답변	36
[그림 4-8] 휴대용CCTV(바디캠)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	39
[그림 4-9] 휴대용CCTV(바디캠)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	40
[그림 4-10] IoT Sensor 활용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변	41
[그림 4-11] IoT Sensor 시스템에 포함될 정보에 관한 답변	42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24년 5월 천안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긴 채 숨졌다. 3월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근절되지 않고 잊힐 만하면 또다시 발생하여 꽃다운 청춘들을 괴롭히고 목숨을 잃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나라의 소중한 자원이고 바르게 자라서 사회의 일꾼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소년들과 그 가족이 점점 많아져 간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적 관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하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1.1 사회안전과 학교폭력

사회안전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 건강, 재산, 그리고 복지 등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 건강, 환경, 심리적 안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안전의 요소로는 범죄 예방, 재난 관리, 질병 관리, 경제적 안전 및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넘어, 모든 측면에서의 안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폭력 예방은 사회안전의 매우 중요한 측면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은 개별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폭력의 피해를 본 학생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이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도 관련이 있다.

1.1.2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

학교폭력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예방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은 사회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학교폭력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 성향을 지니거나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이는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법적 분쟁, 의료 비용, 심리 상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사회 전체의 자원을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하므로 학교폭력 예방은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의 요소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에 이바지하며,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 형성과 관계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형성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해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학교폭력 예방은 단순히 학생들 개인과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자, 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모두 협력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회안전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재난안전 관점에서 학교 안전 시스템을 정리하고 학교 안전 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학교폭력의 유형 및 최근 실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특히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 학부모,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사회안전 측면에서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제시했고 Ⅱ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에 대해서 선행조사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의 피해실태 및 추이를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논하였다.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이론연구를 살펴보았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과 안전 인식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원인과 예방활동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Ⅳ장에서는 학교폭력 설문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응답자별 분석을 시행하였고 학교폭력 예방에 CCTV 역할을 조사하였다.

Ⅱ.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및 실태

2.1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2.1.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을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

학교폭력은 두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와 ‘폭력’이라는 두 용어의 결합이다. 여기서 ‘학교’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지리적·공간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약간의 이론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피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을 지칭한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힘과 이를 위한 권력의 부당한 사용도 넓은 의미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폭력은 단순한 이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박상도, 2001).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연 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다르다(임영식, 1998). 학교폭력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임영식, 1998).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역시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학교 폭력이 청소년 폭력이라는 단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이나 학교 주변과 학교 등하교 중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시키기도 한다.

둘째는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보다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한 미국같은 국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교직원들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범위에 포함하자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교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지만, 최근 들어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폭력을 포함하는 예도 있으며,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포함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셋째, 폭력의 정의를 놓고 명확한 합의가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를 폭력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가하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라고 정의된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도 특정 행위, 예를들어 따돌림이나 욕설 같은 심리적 언어적인 폭력행위를 어디까지 폭력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놓고 정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놓고 장소·주체·폭력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지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러한 개념의 명확화는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다(이재욱, 2012).

2.1.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1〉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 상황
신체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신체를 손이나 발로 때리는 고통을 가하는 행위(폭행) 특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감금)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하여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심한 장난을 빙자한 때리기,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위
언어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말(성격, 능력, 외모,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글을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임. 허위일 때 「형법」 상 가중 처벌 대상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내용(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욕설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해서 언급하거나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계속 퍼뜨리는 행위 신체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예를 들어 “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로 겁을 주는 행위
금품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강제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웃이나 문구류 등을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셔틀(빵, 와이파이),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등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심부름) 폭행 혹은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집단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겁주는 행동, 면박, 골탕 먹이기, 비웃기 따돌림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타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통해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성적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유형	예시 상황
사이버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언어폭력, 명예훼손,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영상 정보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행위 모욕적 언사나 욕설, 악담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 글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특정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수치심, 위협하는 내용 및 조롱하는 글, 동영상 등을 SNS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 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출처: 교육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면)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은 신체적인 변화와 성인이 된다는 것의 생활 확대에 따른 미적응을 수반하게 된다. 이런 시기는 잦은 감정변화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때를 잘 극복하면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좌절의 시기를 가지게되고 결국 문제해결을 폭력 행동에 의존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청소년이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심각하다.

첫째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공격성과 충동성이다.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상대방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겨 한다(이해욱, 2012).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학생의 원인제 공이라는 측면을 주장하며, 주변 환경에 대해 다소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Lockwood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폭력 행동을 하는 데는 크게 4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이해욱, 2012). 첫째, 적대적 관계에 대한 징벌이다. 둘째는 상대방으로부터 굴복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셋째, 자신 혹은 다른 학생을 위한 방어이고 넷째로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감 수호, 명성을 위해서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비행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비행 하위집단에 소속되어 동료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도기봉, 2007).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특성과는 별개로, 근거 없는 공격성과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발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점은 인터넷 공간의 확장과 익숙함 등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태의 다각화로 분석할 수 있다(이해욱, 2012).

선행연구(김창군, 임계령, 2010)에서는 피해자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극적 피해자와 도발적 피해자로 구분하고, 소극적 피해자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하기도 한다. 특히 공격을 도발하는 행동도 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한 이후에 분노와 심한 적개심을 보이며, 교사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다. 도발적 피해자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지므로 소극적 피해자와 유사하다. 다만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대인관계를 꺼리거나 가해 집단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김창군, 임계령,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가장 심각한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전자인 소극적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후자인 도발적 피해 학생은 가해 집단에 가담하는 경향을 보여, 가·피해 집단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뿐더러 보상심리를 기반으로 가해의 발현 모습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재욱, 2012).

2.2 학교폭력의 특성과 실태 추이

2.2.1 학교폭력의 특성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 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최근 들어 청소년 학교폭력의 양상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학교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이재욱, 2012). 둘째로 급격한 산업화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청소년은 자기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해 약간의 죄의식이나 일체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셋째, 폭력행위가 비행 청소년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소년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비행유형이 되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이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며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여섯째, 여학생들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일곱째, 일반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이외에도 집단적으로 따돌림과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폭력이 출현하고 있다(박상도, 2001).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상황적, 관계적, 약탈적, 정신 병리적 폭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적 폭력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며, 폭력을 행하는 친구들이나 비행을 유발할 환경에 놓이면 학교 폭력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의 폭력은 대부분이 폭력적인 매체 모방에 그 원인을 둔다. 다음으로 관계적 폭력은 사람들과의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폭력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복수심에서 비롯하는데 갈등과 사소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대부분 청소년은 비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이재욱, 2012).

약탈적 폭력은 어떤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폭력을 말한다. 아주 전형적인 수

단적 폭력을 의미고, 이것은 범죄적 혹은 반사회적 성격을 내포하며 청소년 폭력의 20% 해당한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와 비교하면 2% 더 높은 약탈적 폭력 유형을 지니고 있다. 주로 금품갈취를 위한 폭력이나 특정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폭력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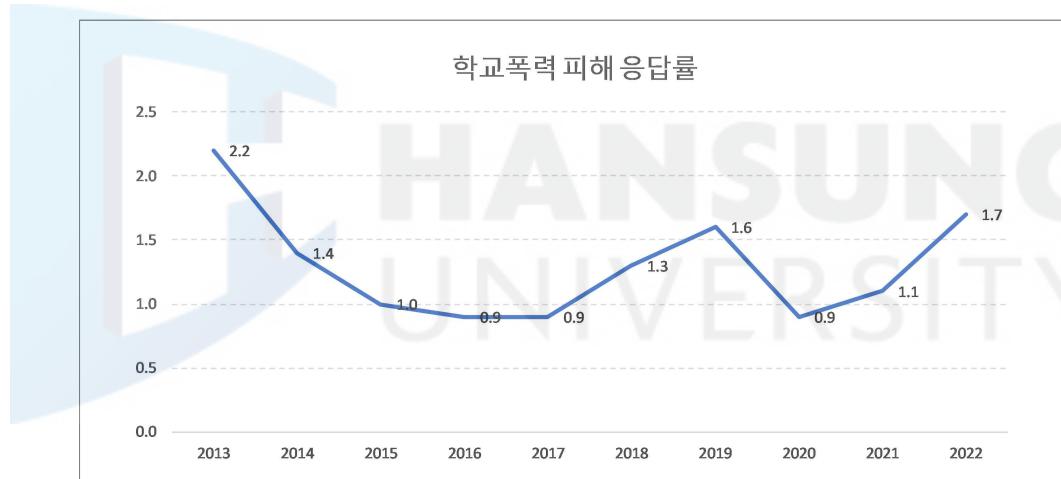
정신 병리적 폭력은 주로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증 같은 정신적인 장애와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비롯되는 폭력을 말하는데 청소년의 정신병적 폭력은 드물고, 폭력 행동의 예측도 마찬가지다(이재욱, 2012). 하지만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혼란의 증가는 청소년의 정신 병리적 폭력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박상도, 2001).

이러한 유형별 구분들 가운데 교육청이나 학교 등 관련 부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개념을 준용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을 신체 폭력,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같은 유형분류는 학교폭력의 발현 형태를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박상도, 2001).

2.2.2 학교폭력의 피해실태 및 추이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2012년 시작된 이후 현재의 체계로 조사가 진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피해 응답률의 변화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2023년 2.2%에서 2016년, 2017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여 0.9%에 이르렀다. 이러한 감소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어 피해 응답률이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과 2017년 당시에 피해 응답률 0.9%라는 수치가 가능한 것이냐 제대로 조사한 것이냐 등의 논란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숫자 자체보다는 당시까지 보여준 추세를 본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그 개선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효과를 거두었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후 피해 응답률이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시작된 이후 입학한 초등학생들이 4학년으로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할 시기인데, 이전의 어느 학년들보다도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피해 응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당시는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발생 이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연속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피해 응답률을 학교급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5년 2.04%까지 감소하던 피해 응답률이 2016년 2.11%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2.08%로 다시 감소하였지만 2018년 2.80%로 증가하였다. 2018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피해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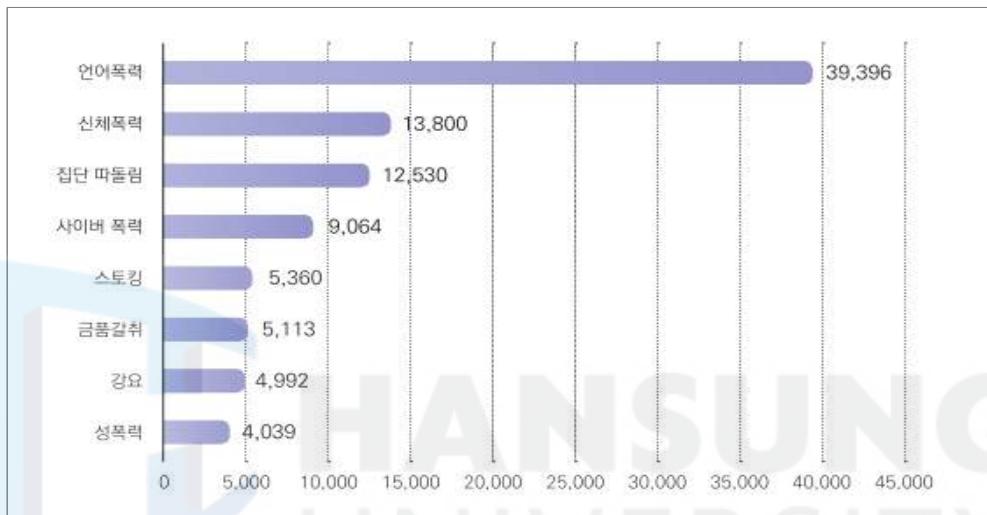


[그림 2-1]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2013~2022)

출처: 정동철(2023; 29~30)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53,812명이다. 8가지 유형별 피해 현황은 언어폭력이 4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 폭력이 14.6%, 집단따돌림이 13.3%, 사이버폭력이 9.6%, 스토킹이 5.7%, 금품갈취 5.4%, 강요가 5.3%, 성폭력 4.3% 순으로 나타났다(정동철, 2023).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 2018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2017년에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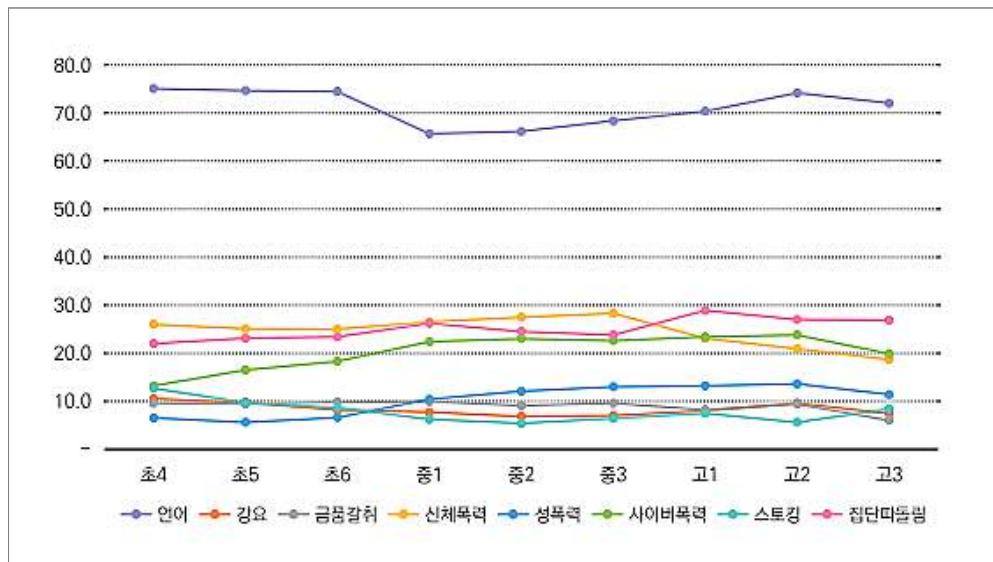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순이었고, 20118년에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폭력, 신체 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순이었다(정동철, 2023). 즉, 상대적으로 신체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을 조장하는 경험이 줄어서 사회적 정서적 역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2] 피해 유형별 피해 응답자 수(2022년)

출처: 정동철(2023; 32)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은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높지만, 학년이 높을수록 조금씩 낮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언어폭력 피해 응답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학교급으로 진급하면서 생기는 출신학교 간의 텃세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집단따돌림 많아지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사이버폭력의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빼고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속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학년별 피해 경험 유형(단위: %)

출처: 정동철(2023; 33)

III.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활동

3.1 학교폭력에 대한 원인

3.1.1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개인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나 가족 그리고 사회, 환경적 요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라 1)개인, 2)가정환경, 3)학교 환경, 4)사회환경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1) 개인적인 원인

청소년기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성숙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여 갈등과 방황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치열한 입시경쟁과 진로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특히 학교적응이 안되는 경우 더욱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과 상대방 피해자에 대한 저공감, 공격성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중에서 공격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데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자들은 늘 불안하여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여 작은 문제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김창군, 임계령, 2010).

이외에도 품행장애와 반항성 장애, 그리고 주의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가

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공격적 방법으로 표출하여 가해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더 빈번히 경험하고 여학생들은 언어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류영숙, 2012).

2) 가정 환경적인 요인

가정은 인격 형성이나 행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일 반화되면서 자녀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처럼 늘어난 시간을 게임방이나 오락실 등의 유해환경이나 인터넷 등의 음란물을 접하는 데 활용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격 형성과 직결되어 폭력의 원인이 된다(김문호, 2014). 그리고 일부는 자녀의 개성이나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욕심에서 과잉 간섭하거나 지나친 훈육을 하게 된다. 이러한 행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반감의 원인이 되고, 이때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김문호, 2014).

또한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급박한 가정에서는 교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참여할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 특성을 면밀히 관찰·지도하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의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문호, 2014).

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의 갈등 관계에 놓인 청소년이나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부모가 학교 선생님과 잘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도 있다(김문호, 2014).

3) 학교 환경적인 요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학교의 원인은 우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적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 환경은 학생들의 적성이나 개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김문호, 2014).

또한 교사들이 학생 지도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재연구나 수업 준비하거나 기타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등 한 명이 일인 다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당국의 정책의 문제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위원회가 개최된 횟수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나 각종 학교평가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가하는 등 규제 위주의 처리를 하고 있다(김문호, 2014). 이러한 정책은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 내지 축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김문호, 2014).

그 밖에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문제이다. 먼저 온정에 의한 처리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제자이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앞길을 고려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가해 학생들이나 잠재적 가해자들에 대한 경계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전학 조치 등의 돌려막기이다(김문호, 2014).

근시안적인 측면에서는 해당 학교의 어두운 곳을 도려내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행이 교정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단순한 전학 조치는 전입 학교에서 또 다른 학교폭력 등의 비행을 범함으로써 소위 오염이 전파되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김문호, 2014).

4) 사회 환경적인 요인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급격한 현대화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붕괴하고, 물질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가 성행하였고, 자본주의 극

단적 역기능은 양극화를 초래하여 극단적이고 상대적인 빙곤감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를 형성하는 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따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를 유발하고 자극하였다. 그 결과 학교 주변에까지 오락실이나 게임장 등 유해환경이 범람함으로써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유흥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창군, 임계령, 2010).

그리고 TV 등 대중매체의 지나친 상업성으로 인해 폭력을 미화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행태도 문제이다. 이에 따라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미화된 폭력에 대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쉽게 폭력을 사용하게 하는 잘못된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언어폭력이나 신체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였다. 또한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은 인터넷을 통한 폭력 음란물 등의 동영상에 접근할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폭력에 대한 죄의식이 둔감해지고, 모방범죄가 행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SNS의 발달로 최근 그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김문호, 2014).

3.1.2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1)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1차 전수조사와 다르게 표본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초4~고2 재학생 약 4%인 14만 명이고 2022년 9월 19일 9:00부터 10월 18일 18:00까지 나이스(NEIS) 기반 온라인 및 모바일로 2022년 1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 피해, 가해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학교폭력 관련 경험, 보호 요인, 예방 및 개입요인을 조사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은 (1)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2) 학교폭력 신고 기회 제공으로 학교폭력의 심각한 확대를 예방하며, (3)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를 통해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회 전수조사, 2018년부터 매년 1회 전수조사와 1회 표본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표본조사는 학교현장의 피로도 및 학생들의 불성실한 응답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1〉 학교폭력 실태조사 최근 조사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비고
2012년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3 학생 전수 • 기간: 2012. 1. 18. ~ 2. 20. • 방법: 우편 조사 • 문항: 피해 여부 및 장소, 목격 사례, 학교폭력 근절방법에 대한 의견 등(3문항)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3 학생 전수 • 기간: 2012. 8. 27. ~ 9. 26. • 방법: 온라인 조사(2012년~현재) • 문항: 피해·가해·목격 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 (최소 12문항, 최대 19문항) 	
2013~2020년			
2021년	1차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3 학생 전수 • 기간: 2021. 4. 5. ~ 4. 30. • 문항: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 및 인식(최소 13문항, 최대 28문항) 	
	2차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2 재학생 약 4%(약 15만 명) • 기간: 2021. 10. 1. ~ 10. 31. • 문항: 학교폭력 관련 경험, 보호 요인, 예방 및 개입 요인(최소 44문항, 최대 60문항) 	사이버폭력 관련 문항 추가 개발
2022년	1차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3 학생 전수 • 기간: 2022. 4. 11. ~ 5. 8. • 문항: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 학교폭력 실태 및 인식(최소 13문항, 최대 28문항) 	
	2차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초4~고2 재학생 약 4%(약 14만 명) • 기간: 2022. 9. 19. ~ 10. 18. • 문항: 학교폭력 관련 경험, 보호 요인, 예방 및 개입 요인(최소 44문항, 최대 60문항) 	

2) 202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최대 9개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정동철, 2023). 학교급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가해 이유로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3-2〉 학교폭력 발생 원인

구분	학교폭력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자 수 (명)	비율 (%)
1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88,226	66.4
2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59,513	44.8
3	나의 보호자(가족, 같이 사는 어른)나 선생님께 관심을 받고 싶어서	9,713	7.3
4	강해 보이려고	72,346	54.5
5	친구나 선후배가 시켜서	19,250	14.5
6	다른 친구나 선후배가 하니까	22,377	16.8
7	피해학생(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	37,375	28.1
8	피해학생(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	23,752	17.9
9	피해학생(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56,326	42.4

출처: 정동철 (2023; 31)

3.2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활동

3.2.1 학교폭력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1) 가정에서의 대책

청소년 비행과 탈선을 결손가정에서 찾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양자 간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 일탈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대화의 결여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부모와 청소년의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하여 자기 발전과 반성을 함으로써 사회에 능동적으로 더욱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예방 또는 선도할 가능성이 크다(김창군, 임계령, 2010).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과주의는 자녀들을 이기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만든다. 스트레스를 학교폭력으로 표출하거나 폭력에 쉽게 순응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 청소년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원만한 가족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가해 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의사소통 교육, 공감 훈련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이재욱, 2012).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화해 모임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를 자신의 처지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푸는 가정에서 출발해야 함을 알 수 있다(이재욱, 2012).

2) 학교 현장에서의 대책

학교의 역할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정책의 대대적인 개선과 교사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학교 교육정책은 성적 위주 관행을 수정하고 학교에서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존경받을 수 있는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질은 학생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생 관리 방법, 학생과의 유대감 증진 및 배양훈련, 스트레스 관리 기술 등을 교원 연수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교사의 의지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재욱, 2012). 이렇게 본다면, 결국 교육정책과 교원의 노력은 맞물려 조화를 이뤄야 함을 알 수 있다(이재욱, 2012).

둘째, 학교 내 생활지도 ·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내의 생활지도와 상담 기능의 강화를 위해 상담 전문교사를 채용하거나, 상담 관련 전공 학부모를 보조 상담교사로 활용하는 등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 단위별로 전문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 지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인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생 지도 대책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이재욱, 2012).

셋째, 학교의 공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의 공간적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의 ‘과대학교 · 과밀학급’에서 ‘소규모학교 · 소규모학급’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나 학생들의 상호관계가 더욱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김창군, 임계령, 2010).

3) 지역사회에서의 대책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은 정서적 측면과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서적

측면은 건전성을 회복·유지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식 함양을 내용으로 한다. 공간적 측면은 공간적 유해환경을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회 전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정서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이재욱, 2012).

공간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유흥업소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의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의 존재는 그릇된 호기심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이러한 호기심이 유흥비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재욱, 2012). 그러므로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차단은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재욱, 2012).

그동안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해환경을 없앤다고는 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시민단체의 활동도 그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흥·숙박업소 등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이재욱, 2012).

또한, 현재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 문화공간의 증가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나 긴장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과 방법이 차단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유해환경에서 반사회적으로 청소년기의 욕구와 갈등들을 해소할 가능성이 크다(이재욱, 2012). 이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대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제안된 여러 방안을 보면 형식적인 일회성으로 끝난 듯싶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는 학내 우범 학생실태, 폭력집단의 구성 및 동태, 지역 폭력집단과 연계 등의 범죄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공동대처해야 한다(김창군, 임계령, 2010).

4) 법 제도적 대책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때 그 법을 준용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조정에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재욱, 2012).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부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학교 주최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이를 묻어 버리는 경향이 강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이재욱, 2012).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들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하면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완벽히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이다(김창군, 임계령, 2010).

같은 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행위 종류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추행·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하여 육체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 행위까지를 포함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속한 신청 및 개시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 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재욱, 2012).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면서 법의 제정과 함께 2005년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명목으로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동으로 마련된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이내에 25%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이재욱, 2012).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예방 교육 및 지원체계의 강화, 피해자 보호와加害者 선도의 강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법의 경직성에서 수반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가변성을 정책적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하자는 취지의 조치로 판단된다(이재욱, 2012).

3.2.2 학교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이론연구

최근 인공지능 AI 관련된 연구가 많아지고 GPU 등 하드웨어 프로세싱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폭력 감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폭력의 정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폭력은 빠르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간축의 진행에 따라 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3D CNN, LSTM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LSTM(Long Short-Term Memory)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이고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이미지 영상인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신경망 아키텍처이

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가 널리 연구되고 있다.

딥러닝을 활용한 영상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폭력행위를 감지하는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호연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증대를 통해 다툼 탐지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김호연, 2020). 학습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머신러닝의 방법인 SVM의 경우 CNN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정확하지 않은 학습 데이터셋의 레이블링을 MIL(Multi Instance Learning)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이전 연구보다 개선된 다툼 탐지 방법을 연구하였다(김호연, 2020).

다툼 탐지의 결과는 약 94%의 검출률을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의 성능을 얻기엔 어려움이 있었고 해당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최적화 함수의 변경 그리고 Backbone의 변경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한 정지되지 않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들의 성능은 정지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김호연, 2020).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고정형 카메라의 경우, 해당 감시 지역에 설치된 카메라에 데이터들을 추가로 학습하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김호연, 2020).

서울대학교 서아름의 연구에 따르면 WhenToWatch라는 폭력 감지 시스템을 제안했다. 데이터 전송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 장치 내에서 구동 가능한 딥러닝 기반의 폭력 감지 시스템으로, 감시 카메라 장치의 전력 소모량과 데이터 처리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판단 모듈과 이를 통해 사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폭력 감지 모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서아름, 2023).

사전 판단 모듈로 인한 추가적인 연산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속도가 빠른 비 딥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을 결합한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이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연산을 실행한다(서아름, 2023).

최종적으로 WhenToWatch는 CCTV와 같이 리소스가 제한된 옛지 디바이스에서 폭력 감지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실험 결과, 제안된 사전 판단 모듈을 적용했을 때, 폭력 감지 모델의 실행 횟수는 데이터 셋에서 약 17% 감소했으며 CCTV 데이터셋에서는 약 3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아름, 2023).

또한 젯슨 나노에서 평균 비디오 처리 시간은 310.46초에서 255.60초로 감소하였으며 전력 소모량은 3,303 mW에서 3,100 mW로 감소하여 WhenToWatch가 효율적인 온디바이스 시스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서아름, 2023).

3.2.3 학교폭력의 예방활동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응답 결과였던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11.9% 차이를 보였다(정동철, 2023).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순으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정동철, 2023).

〈표 3-3〉 효과적인 예방 활동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응답자 수(명)	39,179	24,776	13,133	7,308	15,682	4,592	28,190
	비율(%)	29.5	18.6	9.9	5.5	11.8	3.5	21.2
학교급								
초등학교	응답자 수(명)	20,086	8,805	5,089	2,552	5,543	1,594	8,000
	비율(%)	38.9	17.0	9.8	4.9	10.7	3.1	15.5
중학교	응답자 수(명)	12,837	10,064	4,854	2,935	5,979	1,728	11,862
	비율(%)	25.5	20.0	9.7	5.8	11.9	3.4	23.6
고등학교	응답자 수(명)	6,255	5,906	3,190	1,821	4,159	1,270	8,329
	비율(%)	20.2	19.1	10.3	5.9	13.4	4.1	26.9
성별								
남학생	응답자 수(명)	22,663	13,108	6,234	3,450	7,807	2,172	13,006
	비율(%)	33.1	19.2	9.1	5.0	11.4	3.2	19.0
여학생	응답자 수(명)	16,516	11,667	6,899	3,858	7,875	2,419	15,185
	비율(%)	25.6	18.1	10.7	6.0	12.2	3.8	23.6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② 인성교육, 스포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 ③ 학생 참여 활동, ④ 학교 상담실 선생님의 활동, ⑤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 ⑥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⑦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

출처: 정동철(2023; 33)

특히 주목할 사항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 보다는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CCTV 등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이와 같은 응답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가 없고 'CCTV 설치'가 효과적이라고 대답한 점에서 본 논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3.2.4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인식조사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중 범죄와 안전에 대한 통계치와 교사, 학부모, 졸업생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통계청, 2022).

29.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1)

(단위: %)

	계	안전	매우	비교적	보통	불안	비교적	매우
			3.0	28.8			23.9	20.7
◀ 전반적인 사회 안전 ▶								
<2020>	100.0	31.8	3.0	28.8	44.4	23.9	20.7	3.2
<2022>	100.0	33.3	3.4	30.0	45.0	21.7	19.1	2.6
도 시(동 부)	100.0	33.9	3.5	30.4	44.8	21.3	18.7	2.6
농어촌(읍면부)	100.0	30.7	2.8	28.0	45.6	23.6	20.9	2.7
남 여	100.0	37.0	4.5	32.5	44.0	19.0	16.7	2.3
자 자	100.0	29.7	2.3	27.4	45.9	24.4	21.4	3.0

[그림 3-1]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출처: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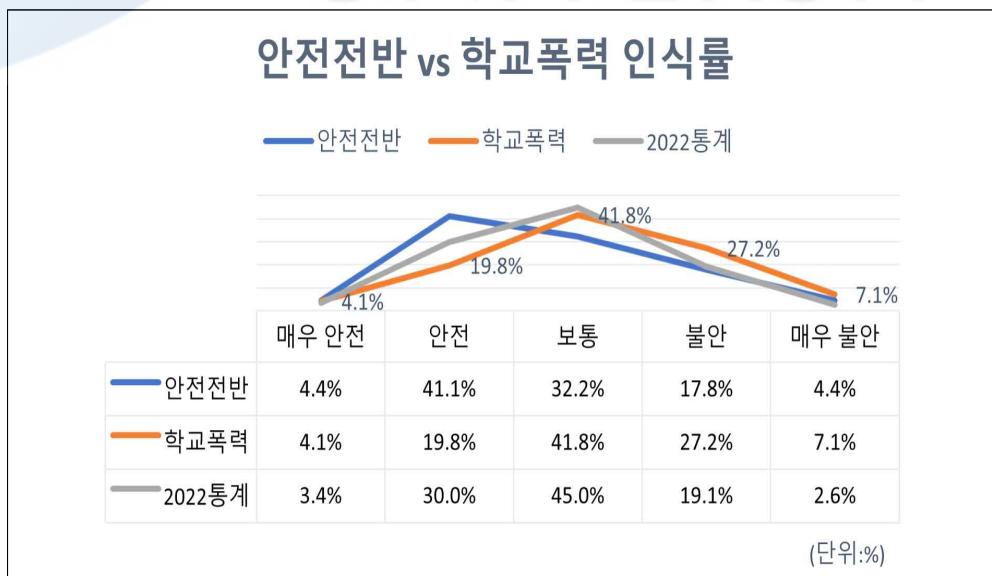
2022년 실시한 통계조사에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33.3%,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을 45.0%, 불안하다고 답한 사람은 21.7%이다.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번 설문 결과는 각각 45.6%, 32.3%, 22.2%로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 이는 설문의 대상이 도시 거주자가 많고 고학력 직인 교사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분석

(단위:%)

구분	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전	매우 불안
2022년 통계조사	100	3.4	30.0	45.0	19.1	2.6
설문 결과	100	4.4	41.1	32.2	17.8	4.4
		+1.0	+11.1	△12.8	△1.3	+1.8

다음으로 안전과 범죄에 대한 안전 인식조사 결과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2022년 통계청 조사한 안전 전반에 대한 인식보다 더 안전하다고 응답했으나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34.3%로 2022년 통계에서 불안하다고 한 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국민 전체보다 더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안전 전반에 대한 인식보다 현저히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3-2] 안전 전반 vs 학교폭력 인식률 분석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21.7%를 직업별로 분석해보면 교사가 41.8%, 학부모 25.5%, 졸업생 32.7%로 분포한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직업별로 교사, 학부모, 졸업생의 비율이 각각 43.6%, 22.9%, 33.5%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직업별로 고르게 분포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3-5〉 학폭 불안 설문자 직업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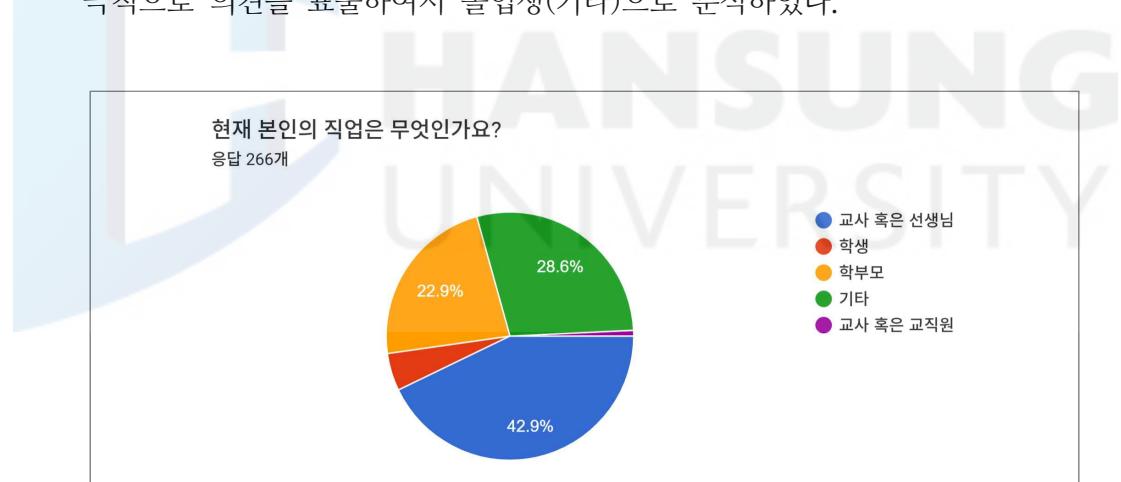
구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직업별 구성	비고
교사	41.8%	43.6%	
학부모	25.5%	22.9%	
졸업생	32.7%	33.5%	
합계	100%	100%	

IV. 학교폭력 설문조사

4.1 설문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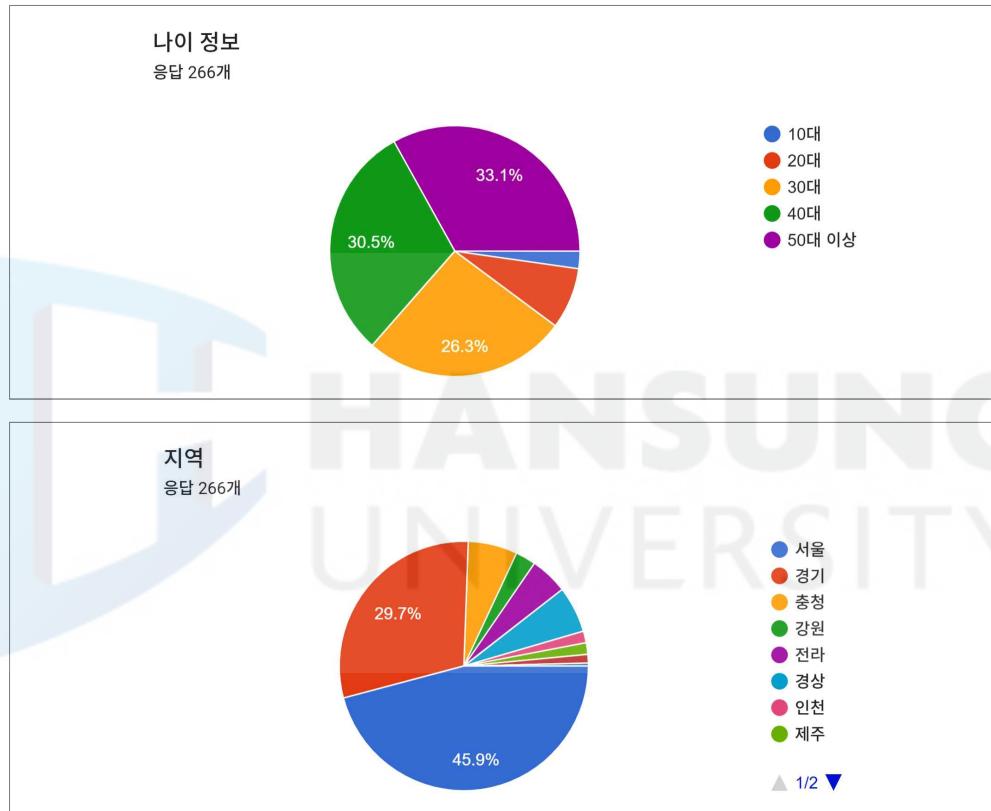
조사는 교사, 학부모, 졸업생 266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2일(수) 15:00부터 10월 10일 9:00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하였다. 조사 문항은 기본문항, 공통문항의 순으로 구성하였고 교사, 학부모, 졸업생(기타)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응답자는 교사 116명(43.6%), 학부모 61명(22.9%), 학생 13명(4.9%), 기타 76(28.6%)명으로 구성되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는 노출을 꺼리는 성향을 보여서 응답률이 저조하였으나, 기타로 분류된 사회인, 주부, 자영업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여서 졸업생(기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4-1] 설문 응답자 직업 분석

성별은 남자 129명(48.5%), 여자 137명(51.5%)도 고르게 분포하였고 나이는 10대 6명(2.3%), 20대 21명(7.9%), 30대 70명(26.3%), 40대 81명(30.5%), 50대 이상 88명(33.1%)으로 분포하였고 50대 이상 응답자들의 구성은 교사 15명, 학부모 37명, 졸업생 36명이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122명(45.9%), 경기 79명(29.7%)으로 서울/경기가 75.6%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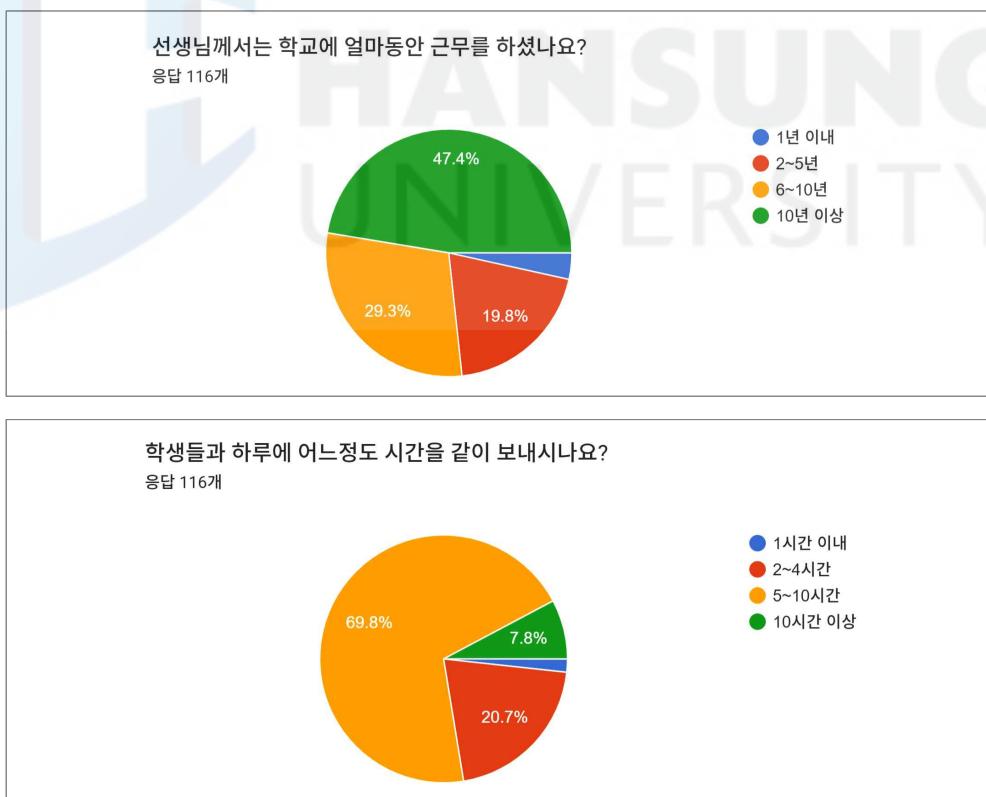
[그림 4-2] 설문 응답자 나이 지역 분석

4.2 설문조사 결과

4.2.1 응답자별 분석

1) 교사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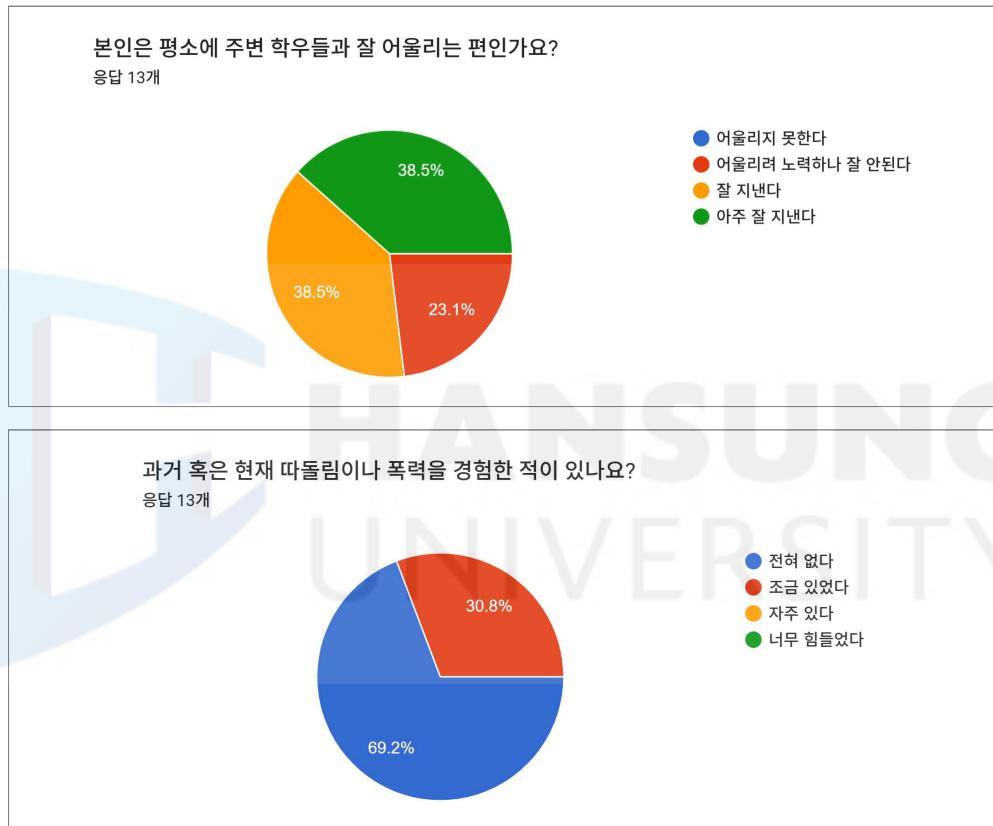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교사들은, 여교사들이 많은 특성이 반영되어 남자 36명(31.1%), 여자 80(68.9%)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 14명(9.3%), 30대 40명(26.5%), 40대 47명(31.1%), 50대 이상이 15명(33.1%)이다. 근무 기간은 1년 이내 4명(3.4%), 2~5년 23명(19.8%), 6~10년 34명(29.3%), 10년 이상이 55명(47.4%)으로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3] 교사 근무 기간 시간 분석

2) 학생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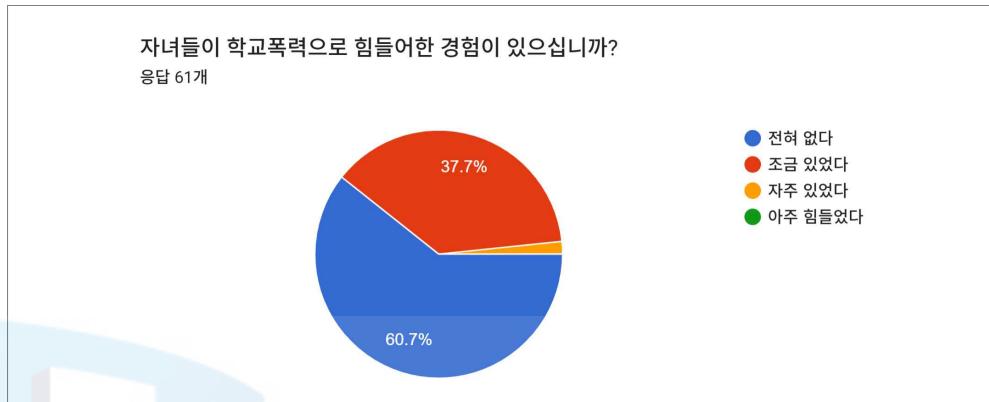
학생은 13명으로 표본 수가 적어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평소 교우관계 대비 높게 나와서 추후 이 부분을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4-4] 학생 교우관계 및 학교폭력 경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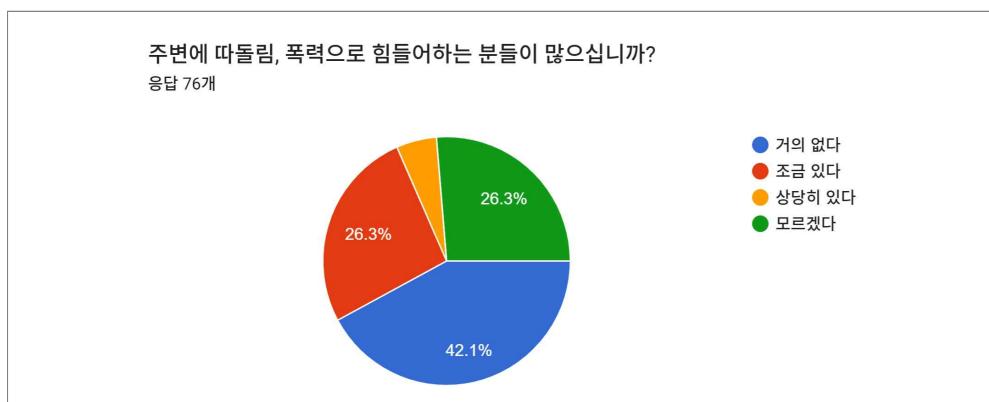
3) 학부모 및 졸업생(기타) 응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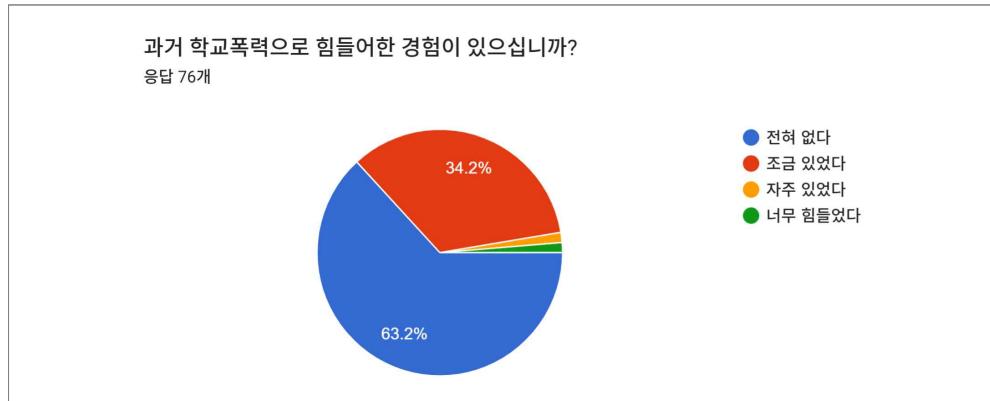
학부모의 설문 결과 자녀들의 학교폭력 경험이 조금 있었다 23명(37.7%), 자주 있었다 1명(1.6%)으로 39.3%의 경험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 4-5] 자녀들의 학교폭력 경험 분석

아울러 졸업생도 주변에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25명(32.9%)이고 본인이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한 경험이 28명(36.8%)이다.





[그림 4-6] 졸업생 학교폭력 경험 분석

4.2.2 학교폭력 예방에 CCTV 역할 인식조사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8.7%, 약간 도움이 된다 47.4%, 도움이 안된다 가 13.9%를 차지하여서 도움이 된다가 86.1%로 압도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림 4-7] CCTV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답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226명의 구성을 보면 교사 91명(40.3%), 학부모 59명(26.1%), 졸업생 76명(33.6%)이다. 교사들이 학교에 CCTV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사전 인터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설문자 직업별 분석

구분	CCTV가 학교폭력 예방이 도움이 된다	직업별 구성	비고
교사	40.3%	43.6%	
학부모	26.1%	22.9%	
졸업생	33.6%	33.5%	
합계	100%	100%	

교사 91명을 분석해보면 남자 28명(30.8%), 여자 63명(69.2%)으로 교사 응답자 전체 116명의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남성 여성 교사들이 모두 78.8%의 균일한 비율로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분석된다. 사전 인터뷰에서 여성 교사들이 CCTV 설치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표 4-2〉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성별 분석

(단위:명, %)

구분	남성	여성	합계	비고
응답자 교사 전체	35	80	116	
	31.0%	69.0%	100%	
CCTV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	28	63	91	
	30.8%	69.2%	100%	
성별 찬성비율	78.8%	78.8%		

모집단 교사들의 연령별 구성은 20대 14명(9.3%), 30대 40명(26.5%), 40대 47명(31.1%), 50대 이상이 15명(33.1%)이다. CCTV 설치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교사들은 총 91명으로 연령분포는 20대 12명(13.2%), 30대 29명(31.9%), 40대 36명(39.6%), 50대 이상 14명(15.4%)이다. 모집단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고 50대 이상은 93%의 비율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전 인터뷰에서 IT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교사들의 CCTV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93.3%의 비율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20대가 85.7%, 30대와 40대는 고르게 72.5%와 76.6%의 비율로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4-3〉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연령별 분석

(단위: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합계
응답자 교사 전체	14	40	47	15	116
	12.1%	34.5%	40.5%	12.9%	100%
CCTV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	12	29	36	14	91
	13.2%	31.9%	39.6%	15.4%	100%
연령별 찬성비율	85.7%	72.5%	76.6%	93.3%	

근무 기간은 1년 이내 4명(3.4%), 2~5년 23명(19.8%), 6~10년 34명(29.3%), 10년 이상이 55명(47.4%)으로 비교적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비율을 1년 이내 3명(3.3%), 2~5년 17명(18.7%), 6~10년 24명(26.4%), 10년 이상이 47명(51.6%)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많은 교사들이 가장 CCTV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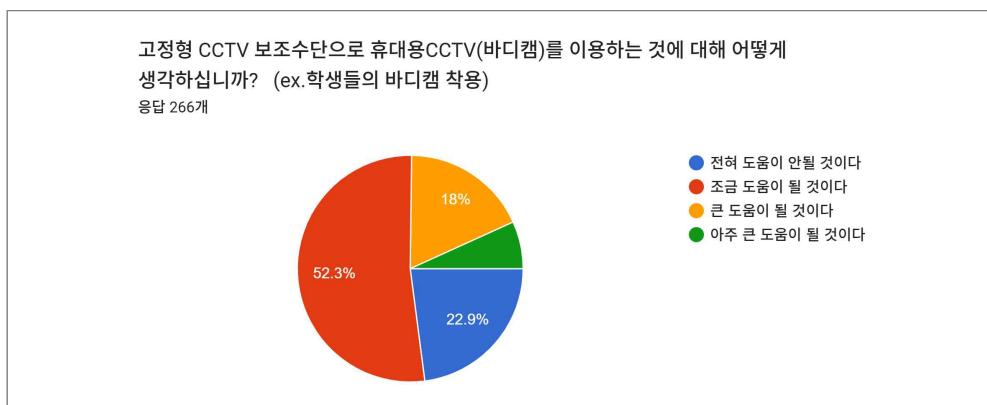
〈표 4-4〉 CCTV가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한 교사들 근무 기간별 분석

(단위:명, %)

구분	1년 이내	2~5년	6~10년	10년 이상	합계
응답자 교사 전체	4	23	34	55	116
	3.4%	19.8%	29.3%	47.4%	100%
CCTV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	3	17	24	47	91
	3.32%	18.7%	26.4%	51.6%	100%
근무 기간별 찬성비율	75.0%	73.9%	70.6%	85.5%	

4.2.3 휴대용 CCTV(바디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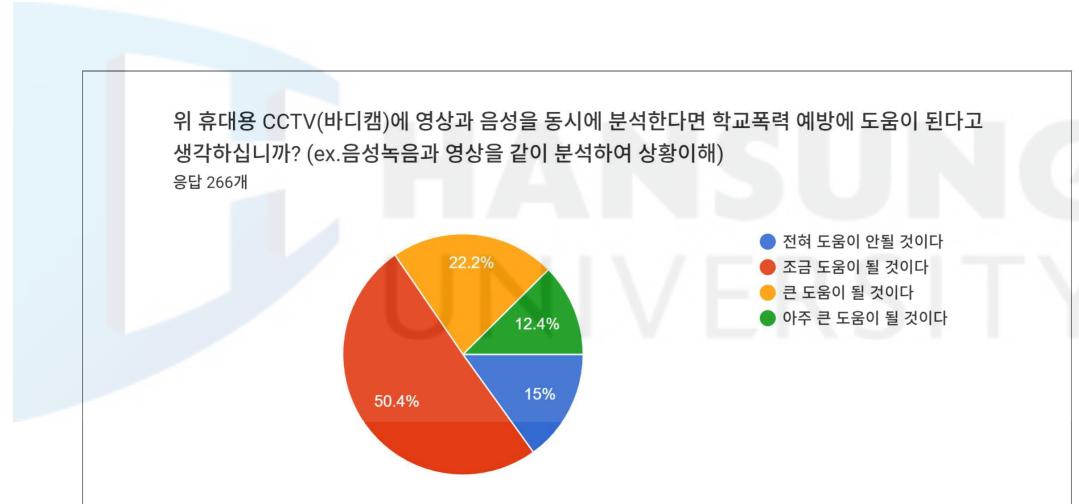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어 고정형 CCTV 보조 수단으로 휴대용 CCTV (바디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 266명중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명 (6.8%),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8명(18.0%),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39명 (52.3%),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61명(22.9%)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8] 휴대용CCTV(바디캠)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질문에 답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7.1%로 많았으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기에 추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관식 질문으로 학생들이 바디캠을 착용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전체 학생들만 착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 학생들만 착용하는가?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수거하는데 바디캠 사용은 위법이 아닌가? 등등 많은 질문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바디캠 도입에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서비스 구성을 제시하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한가지 질문을 추가하였는데 사전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CCTV의 한계로 영상만 저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예방활동 측면에서 음성을 같이 녹음하면 학교폭력 예방효과도 향상되고 학폭 위원회가 열릴 때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4-9] 휴대용CCTV(바디캠)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인가는 질문에 답변

바디캠이 도움이 될 것이고 음성분석이 도입되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특히,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한 34명이 음성분석에 대해서는 20명으로 41.2% 감소하였다.

〈표 4-5〉 바디캠사용이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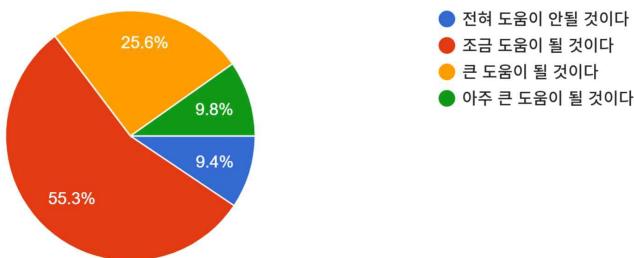
구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큰 도움이 될 것	조금 도움이 될 것	전혀 도움이 안될 것	합계
바디캠 사용에 대한 응답	12	39	97	34	182
	6.6%	21.4%	53.5%	18.7%	100%
바디템에 영성과 음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에 대한 응답	19	47	96	20	182
	10.4%	25.8%	52.7%	11.0%	100%
응답 증가율	58.3%	20.5%	-1.0%	-41.2%	

4.2.4 IoT센서 이용에 대한 의견조사

최근 IT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휴대용 IoT Sensor가 많이 발달하였다. 손목시계(스마트 와치), 손목밴드, 반지, 목걸이 등 많은 IoT Sensor를 사용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9.4%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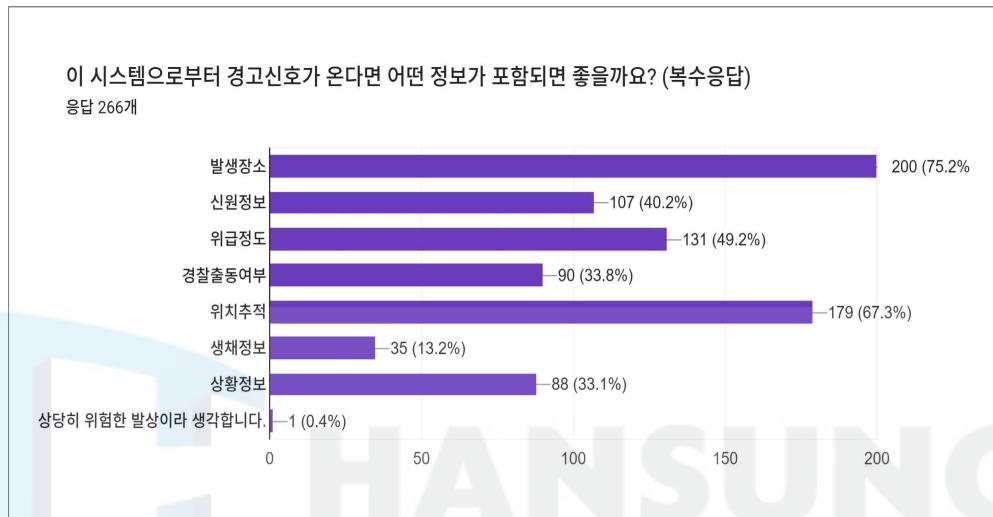
최근 기술의 발달로 휴대폰 이외에 휴대용 IoT Sensor를 활용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손목밴드, 목걸이타입 IoT 센서)

응답 266개



[그림 4-10] IoT Sensor 활용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답변

이 시스템으로부터 받고 싶은 정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는 위치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발생 장소를 응답한 사람이 266명 중 200명으로 75.2%를 차지했고 위치추적을 선택한 응답도 179명으로 67.3%를 차지했다. 추가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0.4%를 기록했다.



[그림 4-11] IoT Sensor 시스템에 포함될 정보에 관한 답변

4.3 소결

본 설문조사는 교사, 학부모, 졸업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한 정량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CCTV 및 IoT 기기의 도입 가능성 평가하기 위함이었고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별 분석

- 교사: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함
- 학부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 요구가 높았음
- 졸업생: 사이버폭력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2) CCTV의 역할 인식

- 학교폭력 예방에서 CCTV 설치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다수를 차지함.
- 범죄 억제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사후 대처에도 유용하다는 의견.

3) 휴대용 CCTV(바디캠) 도입

- 교사용 바디캠 활용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 실시간 녹화 기능이 갈등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제시함

4) IoT 센서 이용

- IoT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폭력 감지에 대해 응답자의 관심이 높았고
- 센서를 통해 사각지대 감시 강화와 조기 경고 체계 구축 가능성 언급하였음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안의 실효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CCTV와 IoT 기술이 학교폭력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을 인지하며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V. 결론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안전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피해 저감과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기술적 도구(CCTV 및 IoT 장치)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였다.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환경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특히, 기술 발전과 인터넷 보급으로 사이버폭력이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CCTV 및 IoT 기반 시스템이 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현재 ‘예방 교육’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통계청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학년일수록 교육을, 연령이 높아질수록 CCTV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 학생들이 CCTV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최근 발달한 IT 기술을 도입하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교사, 학부모, 졸업생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 학교폭력 경험은 30~40%, CCTV 설치에 대해서 86%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교사들이 CCTV 설치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특히, 50대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많은 교사일수록 CCTV 도입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CCTV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디캠이나 IoT Device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특히, 기존 CCTV 영상에 추가로 음성 녹음을 추가해서 분석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IoT 센서를 활용한 사각지대 모니터링과 실시간 폭력 감지가 중요한 예방 책으로 제안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 예방 교육과 IT를 이용한 새로운 예방 시스템의 통합적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분석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IoT 및 AI 기술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에 적용하고 더욱 폭넓은 데이터와 추가적인 실증 연구를 통한다면 학교 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발전한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테일한 학교폭력 시스템 서비스 플로우와 구체적인 활용안이 준비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고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교육부 (2024).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김문호 (2014).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4), 27-51.
- 김창군,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 김호연 (2020). “딥러닝을 활용한 감시 영상의 실시간 다툼 탐지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기봉 (2007). “학교폭력의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영숙 (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9(4), 615-636.
- 박상도 (2001).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200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의제 설정 과정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아름 (2023). “When to Watch: Efficient On-demand Violence Detection for Surveillance Camera”.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욱 (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다애 (199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동철 (2023).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CTR2023-01)』. 한국교육개발원.

2. 참고사이트

교육부(moe.go.kr)

한국교육개발원(ked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re.kr)



부 록

첨부1. 인터뷰 설문지

- 현재 본인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1)교사 2)학생 3)학부모 4)일반인 기타

〈교사용 질문〉

- 학생들과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시나요?
1)1시간 이내 2)2~5시간 3)6~10시간 4)10시간 이상
-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얼마 동안 근무하셨나요?
1)1년 이내 2)2~5년 3)6~10년 4)10년 이상
- 다문화 가정의 자녀 또는 학기 도중 전학을 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1)1건 이내 2)2~3건 3)4~5건 4)5건 이상
- 이러한 학생들이 학우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1)어울리지 못한다 2)노력하나 잘 안된다 3)그럭저럭 지낸다 4)아주 잘 지낸다

〈학생용 질문〉

- 현재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기타
- 본인은 평소에 주변 학우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1)어울리지 못한다 2)어울리려 노력하나 잘 안된다 3)잘 지낸다 4)아주 잘 지낸다
- 과거 혹은 현재 따돌림이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1)전혀 없다 2)조금 있었다 3)자주 있다 4)너무 힘들었다

〈학부모용 질문〉

- 현재 자녀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복수 응답)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4)기타
- 자녀들과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시나요?
1)1시간 이내 2)2~5시간 3)6~10시간 4)10시간 이상
- 자녀들이 평소에 학우들과 잘 어울리는 편인가요?
1)어울리지 못한다 2)어울리려 노력하나 잘 안된다 3)잘 지낸다 4)모르겠다
- 자녀들이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전혀 없다 2)조금 있었다 3)자주 있다 4)너무 힘들었다



〈졸업생용 질문〉

- 현재 직업이 무엇인가요?
1)대학생 2)직장인 3)소상공인 4)기타
-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1)1년 이내 2)2~5년 3)6~10년 4)10년 이상
- 주변에 따돌림,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1)전혀 없다 2)조금 있었다 3)자주 있다 4)모르겠다
- 과거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1)전혀 없다 2)조금 있었다 3)자주 있다 4)너무 힘들었다

〈공통 질문〉

- 귀하는 다음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안보(전쟁, 테러, 북핵 등)]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건축물 및 시설물 위험(붕괴, 폭발 등)]

[교통사고]

[화재(산불 포함)]

[먹거리 위생 문제(불량 식품, 식중독 등)]

[식량 안보 문제(곡물가 폭등, 식량 부족 등)]

[정보 보안 문제(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개인 정보 유출]

[신종 질병(신종 바이러스 감염 등)]

[범죄(유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학교폭력(따돌림, 괴롭힘, 폭력 등)]

[전반적인 사회 안전]

1)매우 안전하다 2)비교적 안전하다 3)보통 4)비교적 안전하지 못하다

5)매우 안전하지 못하다

- 귀하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 학교폭력이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 ▣ 교실
 - ▣ 운동장
 - ▣ 화장실
 - ▣ 복도
 - ▣ 그 외 학교내 장소
 - ▣ 등하교길
 - ▣ 학원
 - ▣ PC방, 스터디카페
 - ▣ 온라인, SNS
 - ▣ 컴퓨터, 주차장, 빙집
 - ▣ 기타...
- 생각하시는 따돌림, 괴롭힘의 징후에는 무엇이 있나요? (복수 선택)
 - ▣ 소지품 분실
 - ▣ 과다한 용돈요구
 - ▣ 전화, 문자 과민방응
 - ▣ 무기력증 호소
 - ▣ 게임 과잉열중
 - ▣ 교화서 훼손
 - ▣ 심한 낙서
 - ▣ 성적 급등락
 - ▣ 불안증세 호소
 - ▣ 기타...
- 학교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상당히 도움이 된다 4) 기타
- 도움이 된다면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 CCTV가 도움이 안 된다면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화장실에 설치가 안 된다 등 (주관식)
- 고정형 CCTV 보조 수단으로 휴대용 CCTV(바디캠)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 학생들의 바디캠 착용)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상당히 도움이 된다 4)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위 휴대용 CCTV(바디캠)에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분석한다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 음성녹음과 영상을 같이 분석하여 상황이해)
 - 1) 전혀 도움이 안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상당히 도움이 된다 4)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최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기 이외에 휴대용 IoT Sensor를 활용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x.손목밴드, 목걸이 타입 IOT 센서)
1)전혀 도움이 안된다 2)약간 도움이 된다 3)상당히 도움이 된다 4)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시스템으로부터 경고신호가 온다면 어떤 정보가 포함되면 좋을까요?
(복수 응답)
 - 발생장소
 - 신원정보
 - 위급정도
 - 경찰출동여부
 - 위치추적
 - 생채정보
 - 상황정보
 - 기타...
- 오늘 저희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중 저희에게 추가로 의미가 있을 만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주관식)



첨부2. 주관식 주요 답변

(오늘 저희가 질문하지 않았던 내용 중 저희에게 추가로 의미가 있을 만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 IoT 서비스와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게 여겨지지만…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다고 학교폭력은 제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의 기능마저 버려지는 것은 아닐는지 고려 부탁드립니다.
- CCTV와 바디캠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
- 학폭은 CCTV가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CCTV가 있어도 사회 범죄는 일어나듯이 학교폭력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하고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학급 단위의 소규모 교육하며 학생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 폭력적인 상황은 인간이 성장 또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 가드가 존재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이 된다면 사회적 지위나 금전 정도에 상관없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법적 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조금이나마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함
- 바디캠 관련 질문에서 바디캠을 착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에 의도가 제대로 전달 되지 않습니다. 학생당사자, 교사, 학교 보안 요원 등등 바디캠 착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 학교폭력이 특히 선후배 간에 일어나면 보복이 무서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복 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도 생각해보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이네요.
- 대부분 학폭 가해자 학부모님들이 해당 자녀에 대해 지나친 과보호 혹은 아주 반대로 방치 방임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도 법적 교육을 필수, 강제로 이수하도록 하고 학부모에 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학교폭력을 저지를 때 학생들이 바디캠을 빼거나 off 시킬 위험이 큽니다. CCTV 등은 보조적 문제임. 촉법소년 법 폐지 태형 신설 삼청교육대 부활이 큰 도움이 될 것임
- 학교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SOS 신고개발 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CCTV + 경비 시스템? 당사자가 아니어도 호출 눌러주면 선생 또는 직원이 찾아갈 수 있게끔. 적발되면 즉시 경찰 및 부모 소환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 바디캠이 악성 학부모들에게 교사 감시 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도 고려하시길
- 기본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요사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아이들에 범죄 노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규제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짓조차 어려워하는데… 이런 바디캠이나 IOT 센서를 착용한다는 것은 명확한 대상의 아이일 때 가능한 거라 생각되는데요.
- IoT 서비스와 디지털화되는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좋게 여겨지지만…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다고 학교폭력은 제지될 수 있지만 나머지 학교의 기능마저 벼려지는 것은 아닐는지 고려 부탁드립니다.
- 바디캠까지 착용해야 한다니 황당합니다. 아이들이나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느껴지네요… 가정교육 및 학교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 바디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먼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보다 반대로 더 많은 학교폭력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양심과 도덕심도 매우 낮은 아이들입니다. 바디캠이 무서워서 학교폭력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평화로운 하부구조 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본 정책으로 정착합시다. 설문이 개개인을 감독 감시하는 분위기라 슬프네요.
- 학교는 교사 학생이 생활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활동 시간 동안 사법기관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수업권 학습권이 보장되며 경찰이나 학부모 변호사 등이 교내에 절차 없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일단 똑바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함부로 녹화하거나 선생님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 듯
- 어떤 센서를 달더라도 아이들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안의 범위에서 또 다른 학폭을 만들어 다른 방식의 괴롭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장치의 촘촘함보다 아이들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보살핌이 더 필요합니다.
- 아이는 힘들어하나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친구 관계들이 많고 당사자가 일을 열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음. 대부분의 따돌림과 괴롭힘은 온라인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 온라인상에서의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생기는 우발적 상황들이 갖고 큰 사건은 학교 밖에서 주로 생김.
- 기술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나? 학폭 문제는 결국 언어 문제 반대 질문 교우관계 개선을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나? 를 바꾸어 질문해 보길
- 바디캠을 착용하면 왕따로 낙인이 찍힐 수 있으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함
- 바디캠 등을 피해 학생이 직접 하고 다니는 건가요? 그것 자체가 학생에게 부담이나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물리적인 학교폭력보다 온라인상 학교폭력, 언어적 학교폭력이 많아져 언어적 정보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기록을 남겼다고 해서 효과적인 예방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처리에 도움

이 될 수는 있지만 평소 장난도 한쪽이 악의적으로 추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은 오히려 걱정됩니다.

- ▣ 바디캠은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바디캠이 악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구나 도구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인성을 길러주는 사회 분위기나 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School Safe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Safety: Focusing on Risk Factor Analysis and Preventive Activities

Hong, Kang-Shik

Major in Soci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pt. of Social Disaster and Safe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safety, school safety system can b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inevitable disasters and disasters arising from human-centered conflicts. Inevitable disasters include natural disasters, floods, fires, and other facility-related hazards. Conflict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students themselves, or, more recently,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fall into the category of human-centered disasters.

Conflicts leading to violence and bullying among students are steadily increasing, evolving into more sophisticated forms such as cyberbullying and social exclusion, thus escalating in severity. Consequently, to address the "school violence" issue effectively, this paper aims to first analyze its causes and then to propose solutions accordingly.

Firstly,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violence" will be explored,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auses. Secondly, solutions utilizing recent advancements in IT technology to combat "school violence" will be examined. Finally, a survey of teachers, parents, and alumni will be conducted to assess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these proposed solutions and guide future directions.

【Key Words】 Disaster Safety, School Safety System, School Violence Detect, CCTV, IoT Device, Violence Detect System

